

# “밀라노 올림픽서 꼭 금 민정·석희 언니에 보답”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김길리(21·성남시청)는 서울 성내초교 4학년 때 재학 중이었던 2014년, 최민정(27·성남시청)과 심석희(28·서울시청)를 처음 만났다.

최민정과 심석희는 훈련 차 한국체대 빙상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훈련하던 김길리는 눈을 떼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만난 김길리는 “언니들을 보고 매우 떨렸다.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최민정, 심석희는 김길리의 롤모델이자 영웅이었다. 김길리는 “두 언니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었다”고 말했다.

꿈은 머지않아 이뤄졌다. 김길리는 주니어 무대를 휩쓸었고, 고교 시절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표팀에 합류한 김길리는 우러러보던 최민정, 심석희와 함께 뛰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두 언니를 뛰어넘었다. 2023-2024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에서 종합 랭킹 1위를 기록하며 세계 정상 자리까지 올랐다.

이제 김길리는 두 언니와 함께 내년 2월에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 나간다.

그는 4월에 열린 올림픽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태극마크를 달았고 2025-2026 ISU 월드컵 1~4차 대회에서 개인종목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밀라노-올림픽 개인전 및 단체전 모든 종목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길리는 올림픽 종목 중 여자 3000m

## 첫 동계 요원 나서는 김길리 각오

3000m 계주, 가장 버리는 종목 하얼빈 대회 언니들에 마음의 빗이 이번에 꼭 금메달 돌려주고 싶어  
加코트니 사로 독주 막는 게 관건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가운데)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심석희(왼쪽), 최민정(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even Hundred Co

계주를 가장 기대한다. 이유가 있다. 그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때 언니들에게 매우 미안했다. 마음의 빗이 남았는데 밀라노에서 금메달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올해 2월에 열린 하얼빈 아시안게임 여자 1500m와 혼성 2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며 2관왕에 올랐으나 기쁜 내색을 하지 못했다.

그는 여자 3000m 결승에서 한국대표팀의 마지막 주자로 1위를 달리다가 결승선을 앞두고 중국 궁리와 충돌해 넘어졌

고, 대표팀은 최종 4위를 기록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경기 후 김길리는 굵은 눈물을 펄펄 흘렸고, 공동취재구역에서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김길리는 도전자 입장에서 생애 첫 올림픽을 치른다.

현재 세계 쇼트트랙 여자부는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가 독주한다.

김길리는 2년 전 월드컵의 전신인 월드컵에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으나 올 시즌엔 종합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김길리는 자신감이 넘친다. 믿는 구석이 있다. ISU는 2024-2025시즌 기존 월드컵을 월드컵으로 개편하면서 대회 일정을 매우 촘촘하게 짰다. 올림픽은 월드컵보다 일정이 빽빽하지 않아서 김길리가 종합 우승한 2년 전 월드컵처럼 체력 안배가 용이하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길리는 “엄마 덕분에 쇼트트랙을 시작했고 건강한 몸을 물려준 아빠 덕분에 큰 부상 없이 기량을 펼칠 수 있었다”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길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친구 딸’이 피겨스케이팅 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에게 피겨를 배우고 싶다고 졸랐다.

어머니 이전영 씨는 마땅한 피겨 강습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 집 근처 한국체대 쇼트트랙 특강 프로그램에 딸을 보냈다. 피겨와 쇼트트랙을 구분하지 못했던 김길리는 그 날로 쇼트트랙 선수의 길을 밝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성남시청 김길리가 4월 13일 서울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 1000m 준결승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NC, 외인투수 테일러 영입

### “트리플A 10승 활약 우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외국인 투수 커티스 테일러(사진)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캐나다 출신 1995년생 테일러는 키 198cm, 몸무게 106kg의 오른손 투수다. 직구 최고 시속 154km를 던지며 스윙퍼와 커터, 싱커, 체인저를 구사한다.

2016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4라운드로 지명받은 그는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213경기(선발 44경기)에 나와 26승 25패, 평균 자책점 3.48을 기록했다.



NC 다이노스

올해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에서 31경기(선발 24경기)에 등판, 137⅓이닝을 던지며 10승 4패, 평균 자책점 3.21의 성적을 냈다.

임선남 NC 단장은 “우수한 신체 조건으로 시속 150km대 강력한 직구와 다섯 가지 구종을 고루 구사하는 투수”라며 “타자와 힘으로 대결하며 제구력도 우수해 내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일러는 “어릴 때 밴쿠버에서 자라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접했다”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살인의 추억 등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고 KBO리그에 진출한 소감을 밝혔다.

## 한국행 막혔던 오드리 박... V리그 신인 드래프트 재도전



본인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이 외국 국적 동포 선수들이 V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길을 열어주면서 2026-2027 신인 드래프트에 재미교포 2세 오드리 박(23·한국 이름 박혜란·사진)



### 외국 국적 동포에 드래프트 개방... 신청 땀 1순위

의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구연맹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선수수급 확대와 리그 흥행을 위해 외국 국적 동포 선수에게도 신인 드래프트 문호를 개

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모 중 최소 1명이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현재 한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선수는 내년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V리그 입단 후 6년 이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선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기간 미취득 시 자격이 박탈된다. 9월 열렸던 2025-2026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타진했다가 규정 벽에 막혀

미국 프로리그(PVF) 콜럼버스 퓨리에 입단한 오드리 박에게도 참가할 기회가 생겼다. 오드리 박은 부모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이민을 간 재미교포 2세로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동안 한국 V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이중국적 또는 특별귀화 등을 통해 V리그 입성에 도전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治人治世

선미디어

황종택 칼럼 신사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사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사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

